OPINION

더이상 5·18은 충격이 아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의와 모순에 저항할 수 있는 민중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쉽다.

송석진
〈정경대 경영 2〉

어떤 사람은 1980년 5월 18일 빛고을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민중항쟁이라고 일컫는다. 용어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해두겠다. 1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5월18일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동떨어져 있는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가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날 일이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장'으로 대표되는 80년대를 빼져 나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밀실'이라는 공간에 더욱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5·18은 어떤 존재일까?

우선 5·18은 광주의 비극적 참사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희생자가 났으며, 아직 정확한 희생자 수 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금 광주라는 공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의와 모순에 저항할 수 있는 민중의 힘을 보여준 점과 군사권력의 잔학한 자기표출이라는 점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십거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의 의미나 정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문민정부 이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많은 5·18 기념 행사에서도 더 이상 광주의 함성은 메아리 치지 않고 있다. 5·18 락음악제, 미술제, 영화제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5·18을 다른 문화양식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5·18의 정신보다 그것을 풀어내는 문화에 더 중점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강요할 수 없는 현실이다. 18년전 광주를 뜨겁게 달구었던 그 함성도 시민을 향해 무참히 발포할수 있었던 군사정권의 잔학함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원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데 오늘날 5·18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의 한 정점에 불과 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80년대 이 사건 직후 많은 서적들은 5·18을 한반도 전체의 '민족운동'의 힘점으로 평가했다. 물론 그 이후 연결선 상에서 일어난 몇가지 사건이 이를 뒷받침하는 듯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와 삶의 질을 가장 큰 문제로서 여긴다. 한총련 등의 운동으로 5·18 연결선상에 일어나는 민족운동은 점차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올해로 열여덟 돌을 맞이하는 5·18은 역사의 뒤안길에 그렇게 서있다.

진실이 밝혀질 그날까지

양승세
〈사회대 행정 3〉

이번 5월 18일은 광주민중항쟁 18주기가 되는 날이다. 오늘날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인식은 예전과는 사뭇 다르다. 광주민중항쟁을 알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이다. 그 전에는 '광주사태'라해서 좌경용공세력들의 반란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와서 알게 된 사실은 상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그 당시(93년도)에는 광주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도 많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광주민주항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광주항쟁 기념재단도 있으며, 기념공원과 5.18기념일과 기념식도 TV를 통해 중계된다. 그런데 과연 광주민주항쟁의 참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광주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에 이은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 군부의 정권유린에 반대하는 민주투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전국적으로 대학생·노동자·일반시민 등이 계엄철폐, 군사정권퇴진, 김대중씨 석방 등을 요구하며 나름대로의 민주화 투쟁을 하였다. 군부에서는 계엄령 전국확대를 통해 대처했으며 탄압해 갔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계속적인 투쟁으로 군부가 군을 투입하여 유혈 진압을 함으로써 사건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진압과정에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즉,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잔혹하게 진압하며 많은 사상자와 부상자를 희생시켰다. 광주민주항쟁은 그 당시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의한 몸부림이며 외침이자 분노였던 것이다. 이 당시 진압 주도 인물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준병과 한·미 연합사령관 위컴을 광주 5적이라 부른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의 영웅인양 훈장과 표창 등을 받았고, 후에 정치계의 유력인사가 된 것을 보면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이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면 영웅이 된다'는 말이 맞는 듯 보인다.

항쟁이 있은 지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그 동안 광주 청문회도 있었고, 책임자들의 처벌(?)도 있었으며 항쟁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규명과 처벌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숨겨지고 은폐된 많은 진실들과 진정한 학살자들의 처벌과 참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번 5·18을 맞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진정한 민주화가 어떤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5·18을 맞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되새겨 진정한 민주화가 어떤 것인지 한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의 감시자이며 그 수호자로써 정부의 정책 및 행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며 참여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소리 높여 외치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주의 열린소리 주제는 '5·18 광주민중항쟁' 입니다. 그리고 다음주는 **실업문제와 노사정갈등**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정성스런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투고하신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실 곳
· 천리안 zpiknews
· 하이텔 khunews
· 유니텔 khunews
원고량 : 200자원고지 8매이하

PC 통신원

이제는 말할때

KBS에서 언론의 허와 실을 드러내는 프로그램인 '이제는 말한다'를 방영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는구나' 하며 KBS의 결단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KBS경영진이 이 프로그램의 방영을 반대하고 나서 사내 노조와 여러 시민단체 등 여론이 술렁였다. PC통신 하이텔에서도 여전히 외부압력에 좌지우지하며 몸을 사리는 방송사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주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개혁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 시험대랄 수 있는 문제의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ID:눈솔),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방영하지 않고 폐기처분하다니... 경영진들 자기 돈 안들었다고 너무 심한 것 아닌가(ID:magic111),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이 문제가 제대로 보도된 적이 없다. 진정한 언론이라면 썩은 곳은 오려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ID:예쁜오리)는 등의 프로그램 방영을 애타게 기다리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런 중 KBS노조 위원장의 단식과 노조 집행부의 철야농성 끝에 지난 12일 겨우 합의를 봐 16일부터 1회씩 방송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개운치 않은 것은 'KBS 굴종과 오욕의 역사'와 '광주민주 항쟁'편은 16일, 18일로 각각 방영날짜가 결정되었으나 '조선일보를 해부한다'편의 경우는 6월 중에 방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를 다루는 편이 하루 빨리 방영되기를 촉구하며 국민에게 반드시 확답을 해야 한다(ID:민주통신), 조선일보가 곪아있다면 우리는 그 진실을 바로 알고 단호하게 비판과 비난을 보내야 할 것이다(ID:klh1)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KBS는 먼저 정치와 외부세력에 독립하기 전에는 말할 자격이 없다. 만약 정권이 바뀌면 이제는 '한겨레신문 해부한다' 할 지도 모른다. 이제는 말한다 자체가 모순이다(ID:briand)라며 개혁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 스스로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처음이며 이는 한국언론 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이제는 말한다'가 언론부패를 억제하고 아예 그 뿌리부터 뽑을 수 있어야 하겠다.
〈정수윤기자〉

알 림 터

교수동정

【서울캠퍼스】

△장진 (물리학) 교수=18일부터 21일까지, SID학회참가 및 논문발표차 미국방문
△서영호 (경영학) 부교수=18일부터 22일까지, OECD전자상거래 각료회의 운영차 프랑스방문
△조경삼 (의학) 교수=15일부터 21일까지, 종양학회 논문발표차 미국방문
△장영운 (의학) 부교수=18일부터 22일까지, 소화기 학회 논문발표차 미국방문
△장린, (의학) 교수=19일부터 22일까지, 소화기병학회 논문발표차 미국방문
△동석호 (의학) 교수=19일부터 22일까지, 소화기병학회 논문발표차 미국방문
△서환조 (의학) 교수=14일부터 23일까지, 학회논문발표(국제감염학회)차 미국방문
△조여원 (식품영양학) 부교수=13일부터 18일까지, clinical nutrition 센터방문차 미국방문

취업정보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주)C&S테크놀로지=마케팅(영업),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515-4468
△레고코리아=영업직,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0336-39-5245
△켈리포니아유니온=경영, 회계, 여학생, 7211-822
△한국켐트로닉스(주)=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420-3386
△이원컨설팅그룹=재무회계, 관리회계, 정경대 531-7520
△(주)디엔디전자=해외영업부, 문리대, 법대, 정경대, 사대, 0343-244-031

【수원캠퍼스】

△Cyber Planet Korea=프로그래머, 23일까지, 338-4034
△Dupont Photomask=19일까지, 0336-30-1112
△(주)한일미진=해외영업, 249-5653
△(주)대신생명보험=영업관리, 3472-1455/6
△(주)청호인터내셔날=영업관리, 19일까지, 777-6150
△(주)건인텔레콤=전산, 31일까지, 577-7633
△(주)보광=정밀전자, 제어계측, 20일까지, 0546-467-6114
△(주)디앤디전자=해외영업, 23일까지, 0343-244-031
△이원컨설팅 그룹=재무회계, 관리회계, 19일까지, 531-7520
△삼양비지니스포옴=영업직, 20일까지, 462-3770
△(주)한국컴트로닉스=이공계, 30일까지, 420-3386
△(주)제일화재=영업관리, 법인영업, TM팀, 30일까지, 708-4692/5
△(주)조선선재=중어중문, 24일까지, 3459-9371

습득

분실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검은색 지갑=김규철

【수원캠퍼스】

△학생증=중앙도서관, 지난주, 이동석
△주민등록증=중앙도서관, 지난주, 김보연

분실

습득자 편집실로

【서울캠퍼스】

△남색학교가방=복관식당, 015-8604-7607

【수원캠퍼스】

△F2 수동카메라=김희진(96), 건축공학과, 공대 148강의실, 015-8449-8976
△검정색 반지갑=11일, 오후10시 1002번 버스 018-229-0063

모임

【서울캠퍼스】

△부산 내성고 동문회=20일, 오후 6시, 학교 정문앞

【수원캠퍼스】

△동덕여고, 경문고 동문회=22일, 오후 5시 30분, 공대식당
△공항고 동문회=21일, 오후 5시 30분, 학생회관 식당

아르바이트

취업정보실로 문의

【서울캠퍼스】

△한국 갤럽=전화설문조사(여), 시간당 3,000원, 3702-2662
△서비스 마스터=성심병원 청소업무, 시간당 3,000원, 512-3535
△육사관광 안내소=육사견학 및 홍보, 1일 2만원, 976-6454
△(주)새한 익스트랜스=배송보조 및 운반, 1일 3만원, 3158-3631
△(주)진영=주차안내 및 대행, 706-1857
△(주)코리아 데이타 네트워크=설문조사, 518-4057
△(주)일동제약=홍보직, 시간당 5,000원, 943-0158
△(주)한국닐슨=무비카메라 작동경험자, 2시간당 1만5천원, 515-9527
△주택은행(이문지점)=업무보조, 959-7671
△(주)피스 에스에스=홍보(PC통신, 인터넷), 시간당 4,000원, 456-8236
△(주)한일 카페트=백화점 판매보조(남), 월 75만원, 548-9882
△(주)유성기연공업=폐수정화시설관리 및 설치, 자격증 소지자, 842-1212
△(주)한국 과학 기술원=문서수발실(남), 운전 가능자, 958-3219
△태권나라=사무보조(남), 시간당 2,500원, 234-9111

【수원캠퍼스】

△(주)한통=홍보직, 여, 0331-284-8517
△(주)서울정보처리학원=강사직, 홍보직, 3392-0343/5

등기

등기물 우편실로

【서울캠퍼스】

△철학=최진욱(4) △영문=김좌근(92) △이학부=이진(97) △법학=강성수(3) △행정=박진석(3) △무역=장양식(4) △언론정보=정재호(2) △의예=박지나(97) △한의예=김정국(1), 박명(95) △한의대학생회=회장 △한의학=데이빗리(1), 임형택(2) △치의예=김태형(1) △치대 관현악단=단장 △약학=신경미(2) △피아노=김덕화

【수원캠퍼스】

△영문=진은주(2) △불문=최영욱(4) △환경=이정빈(91) △전자=김영희(4) △제2공학부=방유진(2) △생명자원=박찬주(1) △체육=박은혜(2) △애지원=김수원(106), 이용수(201), 김준호(311), 박현숙(332), 문지혜(534), 이중재(557) △학생회관=김영덕(701) (98)

고 침

지난 5월 4일자 1145호 1면 학부제 관련 기사중 '환경·응용과학'을 '환경·응용화학'으로 바로 잡습니다.

도깨비 장터

삽니다

【서울캠퍼스】

△'인체와 생명' 교재=015-120-2606

【수원캠퍼스】

△물리, 전자, 신회로 이론=204-2132

팝니다

【서울캠퍼스】

△비디오테잎(당산대행, 사망유희, 맹룡과강, 정무문)=만원, 019-224-9397
△자전거(12단)=5만원, 011-805-4536

【수원캠퍼스】

△컴퓨터 MMX200 16램 24배속, 2.5G, 모뎀5.6k(모니터 포함)=019-267-6913
△세이코 크리스탈 휴대TV=018-567-0609, 기숙사 201-2780

학우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벼룩시장인 '도깨비장터'를 마련했습니다. 사고 싶은 것, 팔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도깨비장터 대자보에 적어 주기 바랍니다.

알림터 이용안내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마감

알림터는 여러분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게시판입니다.
우리 주변의 소식이나 알리고 싶은 일을 전해 주십시오.
문의 Tel. (02) 961-0095, Fax. 962-7718
Tel. (0331) 201-2056, Fax.(0331) 204-8121

주 간 식 단 표

5월18일~5월24일 서울 복지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18일)	화(19일)	수(20일)	목(21일)	금(22일)	토(23일)	일(24일)
아침	3층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 1,300	양식1,300 어묵국1,300	된장찌개 1,300
	2층	김치콩나물국 1,300	배추된장국 1,300	쇠고기무국 1,300	해장국 1,300	쇠고기미역국 1,300		
점심	3층	불고기필라프 1,700 피망야채밥 1,500	폭찹 1,700 중국식볶음밥 1,500	새우까스 1,700 간짜장밥 1,500	치킨까스 1,700 곱창볶음덮밥 1,500	카레돈까스 1,700 가지불고기덮밥 1,500	제육덮밥 1,500 우거지갈비탕 1,700	비프스튜 1,700 김치비빔밥 1,500
	2층	설렁탕 1,500 닭갈비백반 1,700	얼무비빔밥 1,500 감자두부찌개 1,500	제육덮밥 1,500 알찌개 1,700	부대찌개 1,500 사태떡찜백반 1,700	닭개장 1,500 쇠고기잡채밥 1,700		
저녁	3층	스위스스테이크 1,700 해물볶음밥 1,500	카레라이스 1,500 콩나물떠덕쌈백반 1,500	비프스튜 1,700 쇠고기볶음밥 1,500	하이라이스 1,500 쇠고기버섯볶음덮밥 1,700	스파게티 1,500 깐풍기 1,700	팔보채 1,700 김치수제비국 1,300	후랑크케찹볶음밥 1,500 난자완스 1,700
	2층	제육볶음+쌈밥 1,700 쫄면 1,200	오징어볶음덮밥 1,500 잔치국수 1,200	떡만두국 1,500 모밀국수 1,200	산채비빔밥 1,500 물냉면 1,200	순두부찌개 1,300 비빔냉면 1,200		

5월18일~5월24일 수원 학생회관 식당

구분	요일	월(18일)	화(19일)	수(20일)	목(21일)	금(22일)	토(23일)	일(24일)
아침·점심 1,200		미역국	근대국	어묵무국	우거지국	순두부국	오징어무국	콩나물국
간편식 I 1,500		산나물비빔밥	닭고기탕수육	오이피클볶음밥	돈까스	비빔밥	김치필라프	제육김치덮밥
면 류		물냉면 1,500	쫄면 1,200	스파게티 1,500	비빔라면 1,300	쇠고기짜장면 1,300	쇠고기짜장면 1,300	비빔냉면 1,300
저녁 1,200		배추국	부대찌개	버섯섞어찌개	돈육야채찌개	감자국		김치찌개
간편식 1,200			쇠고기볶음덮밥	돼지갈비찜덮밥	육개장	카레라이스		제육김치덮밥
스 낵		우동, 만두튀김, 샌드위치, 김밥, 떡볶이, 치킨set, 씨리얼set, 김치전						

5월18일~5월24일 수원 공대식당

구분	요일	월(18일)	화(19일)	수(20일)	목(21일)	금(22일)	토(23일)	일(24일)
아 침		개교기념일	콩나물국김치국 1,200	조갯살미역국 1,300	쇠고기무우국 1,300	북어해장국 1,200	쇠음배추된장국 1,200	
점 심1			육개장 1,300	햄섞어찌개 1,300	우거지갈비탕 1,500	제육볶음덮밥 1,300	회덮밥 1,500	
점 심2			돈까스 1,500	오므라이스 1,500	탕수육백반 1,500	생선까스 1,500	미트볼과양송이소스 1,500	
저 녁			닭매운탕 1,300	모듬비빔밥 1,500		콩나물김치볶음밥 1,300		
			피망야채볶음밥 1,300	청국장찌개 1,200		뚝배기연두부찌개 1,500		
스 낵			탕수만두1,000 김치900	떡볶이900 해물파전1,000	찐만두800 야채튀김1000	후렌치T900 떡꼬치900		
스낵면류			쫄면 1,200	모밀비빔국수 1,300	열무김채비빔냉면 1,300	양송이스파게티 1,300	만두라면 1,000	